

14세기에서 19세기의 한국·중국·일본의 조경식물 선택 및 배식

박경자

(사)전통경관보전연구원

I. 머리말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성숙된 문화가 발전한 시대이며, 특히 이 시기는 한국의 경우 중국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으나 독특한 한국성의 표출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대표적 문집의 관련문헌연구를 중심으로하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 관련문헌과 대표적 유적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조경식물 선택 및 배식을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 시기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경식물 선택 및 배식상의 특징을 개괄할 수 있도록 했다.

II. 한국

1. 식물 선택

1) 노수신¹⁾ 십청정의 식물 십종류와 형상, 십청정 수목이 식재된 정원을 묘사했다.

이름하자면, 회나무, 잣나무, 소나무, 移²⁾, 해송, 진송, 두충, 비자, 회양목, 적목이다. 모두 합하여 이름을 십청정이라 하였다.

2) 권벽(權擘)³⁾은 『習齋集』卷之三 ‘題十靑亭并序 십청정을 제목으로 하다. 아울러 序를 부친다.’에서 십청정 열가지 수목의 형상을 묘사했다.

3) 김귀영(金貴榮)⁴⁾은 『東園先生文集』卷之一 ‘寄題盧蘇齋守愼十靑亭 노소재 수신의 십청정 제목에 부쳐’에서 정원을 꾸미고 십청정 수목이 식재된 정원을 묘사했다.

4) 심수경(沈守慶)⁵⁾은 『견한잡록(遣閑雜錄)』에서 ‘〈심수경(沈守慶) 찬(撰)〉중에서---’ 십청정의 푸른 빛의 아름답고 기이함을 묘사했다.

2. 식물의 배식

1) 涉趣園記 십취원기에서는 십취원 초목의 배열과 용도서와 귀문원의 배식에 비교했다. 특히 소나무와 국화의 애증함을 표현했다.

2) 하거원기(何去園記)에서는 집주위의 자연을 최대한 살리고 거기에 조금 인공을 가하여 연못을 파고, 다리를 놓고 대를 쌓고 돌을 깔고 가산을 만들고 정원 곳곳에 다양한 조경식물을 배식했다. ○ 花石第五, 形勝第三, 眺望第四 3편은 18세기 사대부가의 주거문화에 관한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사의당지(四宜堂志)에 나오는 글이다.

관결사부군은 꽃나무와 돌(花石)을 비축하여 만년의 맑은 감상 거리를 만들었다. 꽃나무의 종류와 배식상태를 볼 수 있다.

3) 김문옥(金文錡)의 『효당문집(曉堂文集)』 백화원기(百花園記)에서 조경 수종과 배식상태를 볼 수 있다.

4) 장위항(張緯恒)의 『와은집(臥隱集)』 와운유거기(臥雲幽居記)에서 초목의 종류와 배식상태를 볼 수 있다.

5) 용도서와 귀문원의 수종과 배식

III. 중국

1. 식물의 선택[選種]

강남원림의 경우 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은 최근에 비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명청시기 식물경관 원형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에 소주지역 원림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유돈정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돈정의 《소주고전원림(蘇州古典園林)》에서는 소주원림의 식물을 관화류(觀花類), 관과류(觀果類), 관엽류(觀葉類), 임목(林木) 및 음목류(蔭木類), 등근류(藤蔓類), 죽류(竹類), 초본(草本), 수생식물의 일곱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관화류(觀花類)는 꽃의 빛깔이 수려하고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원림에서 중요한 관상대상이 된다. 상록류에는 산차(山茶), 계화(桂花), 광옥난(廣玉蘭), 월계(月季), 두견(杜鵑), 협죽도(夾竹桃), 치자화(梔子花), 금사도(金絲桃), 유월설(六月雪), 병난(瓶蘭), 탐춘(探春), 황소형(黃素馨), 함소(含笑) 등이 있다. 낙엽류에는 목단(牡丹), 옥란(玉蘭), 매(梅), 도(桃), 행(杏), 이(李), 해당(海棠), 자미(紫薇), 정향(丁香), 목근(木槿), 목부용(木芙蓉), 신이(辛夷), 납매(蠟梅), 자형(紫荊), 수구(繡球), 금대화(錦帶花), 영춘(迎春), 연교(連翹), 진

주매(珍珠梅), 체당(槎棠), 옥리(郁李), 유점매(榆葉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목단은 “화왕(花王)이라 불리는데, 꽃이 크고 색이 아름다워서 원림의 화단에서 주로 심는다. 해당과 자정은 자태와 화색이 아름답고 산위, 물가, 정원을 가리지 않고 많이 심는다. 해당은 또 서부(西府), 수사(垂絲), 첩경(貼梗), 목과(木瓜) 등으로 나뉘는데, 그 형태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상당한 관상가치를 가진다. 이 중 특히 수사해당이 많이 쓰인다. 산차와 계화는 사계절 모두 푸르고 음지에도 잘 견디며 꽃이 아름다워서 역시 많이 심는다. 뇌매화는 겨울철의 중요한 관상대상으로 정원안에 많이 심는다.

관과류(觀果類)는 과실을 관상하는 화목이다. 주로 여름과 가을의 관상용이며 경우에 따라 겨울철에 점철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상록류에는 비과(枇杷), 길(桔), 향연(香椽), 남천죽(南天竹), 구골(枸骨), 산호수(珊瑚樹) 등이 있다. 낙엽류에는 석류(石榴), 화홍(花紅), 시(柿), 무화과(無花果), 구기(枸杞), 조(棗) 등이 있다. 이 중 비과는 과일 중의 황금이라 불리며 관상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원림에서 자주 쓰인다. 남천죽은 겨울에 붉은색 과일을 맺는데, 주로 남매와 함께 심는다. 관엽류(觀葉類)는 아름다운 잎을 관상하는 화목이다. 상록류에는 과자황양(瓜子黃楊), 석류(石榴), 도엽산호(桃葉珊瑚), 팔각금반(八角金盤), 여진(女貞), 사란(絲蘭), 종려(棕櫚) 등이 있다. 낙엽류에는 척(槭), 풍향(楓香), 오구(烏桕), 수류(垂柳), 산마간(山麻杆), 정류(檉柳), 홍엽계(紅葉李) 등이 있다. 그 중 척(槭) 즉 단풍나무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잎의 색과 자태가 모두 다르고 한 그루로 심던지 모아서 심던지 모두 좋다.

임목 및 음목류(林木, 蔭木類)는 원림에서 산림과 녹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자, 원림식물배치의 기초이다. 상록류에는 나한송(羅漢松), 백피송(白皮松), 흑송(黑松), 마미송(馬尾松), 회백(檜柏), 유삼(柳杉), 향장(香樟) 등이 있다. 낙엽류에는 오동(梧桐), 은행(銀杏), 유(榆), 낭유(榔榆), 거(櫟), 박(樸), 조엽수(槲葉樹), 괴(槐), 풍양(楓楊), 후춘(臭椿), 연(楝), 합환(合歡), 재(梓), 황연목(黃連木), 조협(皂莢) 등이 있다. 이 중 풍양은 생장속도가 빠르고 가지가 굵어 있으며 나무잎이 무성하여 쉽게 울창한 녹음을 구성할 수 있어서 원림에서 자주 사용된다. 등만류(藤蔓類)는 원림에서 산석이나 담장 혹은 화가(花架)에 기대어 기르는 식물이다. 타고 오르는 습성으로 인해 비어있는 면을 메워서 생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 상록류에는 장미(薔薇), 목향(木香), 벽려(薜荔), 낙석(絡石), 상춘등(常春藤), 금은화(金銀花), 포지백(匍地柏) 등이 있다. 낙엽류에는 자등(紫藤), 능소(凌霄), 파장호(爬牆虎), 포도(葡萄) 등이 있다. 이 중 자등이 가장자리를 타고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줄기를 각종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목향은 가지가 많고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서 원림에서 빈번하게 채취된다. 죽류(竹類)는 습하고 따뜻한 기후와 미옥한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남지방에 적합하다. 자태가 시원스럽고 겨울에도 시들지 않으며 소나무나 측백나무

와 함께 증시된다. 생장속도가 빠르고, 음지이건 양지이건, 담장 아래건 연못가이던 모두 심을 수 있다. 자주 쓰이는 것에는 상죽(象竹), 자효죽(慈孝竹), 약죽(箬竹), 석죽(石竹), 관음죽(觀音竹), 수성죽(壽星竹), 반죽(斑竹), 자죽(紫竹), 방죽(方竹), 금상벽옥죽(金鑲碧玉竹) 등이 있다. 이중 상죽이 가지가 크고 곧기 때문에 여러그루를 함께 심으면 시원한 녹색경관을 형성한다. 약죽은 잎이 넓고 낮으며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가산위에 심으면 산림의 맛을 더해줄 수 있다. 자죽과 방죽은 잎이 가늘며 주로 그늘진 구석등에 빈 공백을 메우거나 시선을 막기위해 심는다.

초본(草本)식물로 자주 보이는 것은 파초(芭蕉), 작약(芍藥), 국화(菊花), 흰초(萱草), 서대초(書帶草), 계갈초(諸葛菜), 연미(鳶尾), 자악(紫萼), 옥잠(玉簪), 추해당(秋海棠), 자말리(紫茉莉), 봉선화(鳳仙花), 계관화(雞冠花), 촉계(蜀葵), 추계(秋葵), 압지초(鴨趾草), 호이초(虎耳草) 등이 있다. 그중 파초는 주로 정원에 창문 앞이나 담장의 구석에 심는데, 자태가 성글고 시원하며 시원한 녹색 잎이 높은 관상효과를 갖는다.

수생식물에는 하회(荷花), 수련(睡蓮), 노위(蘆葦) 등이 있다.

북경 사가원림은 귀(槐), 조(棗), 유(榆)의 세종류가 가장 자주 보이며, 기타 관상수로는 은행(銀杏), 송(松), 백(柏), 양(楊), 유(柳), 상(桑), 향춘(香椿), 후춘(臭椿), 추(楸), 합환(合歡) 등이 있으며, 화훼로는 해당(海棠), 정향(丁香), 목단(牡丹), 작약(芍藥)을 증시하며 매화(梅花)는 적게 보인다.

2. 식물의 배식(配植)

중국 고전원림에서 식물을 심는 형식은 크게 점종(點種)과 총식(叢植)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종한 나무가 더욱 사람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주로 크고 높은 교목(喬木)을 점종한다. 그 외 나무의 형태가 아름다우며 반드시 더하여 놓는 것들이 적절해야 한다. 나무의 자태란 줄기나 가지의 자태 및 나무줄기 윗부분의 윤곽선을 가르킨다. 이들은 가급적 인공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수종의 특색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한다. 중국원림이 서양원림과 다른 점은 식물을 심는 방식이 가지런하고 정연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종의 선택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많은데, 한 가지 수종을 계속 심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수종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 심기도 한다.

중국 고전원림의 수목은 공간의 층차감을 풍부하게 해주면 경관을 심원하게 보이게 해주기도 한다. 나무 가지와 잎을 통해 바라본 경관은 비록 일정한 거리안이지만 시각적으로 겹겹의 층차감을 더하게 때문에 경관점과 대상경관 사이에 수목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비록 물리적으로 같은 거리일지라도 시각적으로 더욱 멀게 느끼게 할 수 있다.

수목의 줄기와 가지 그리고 잎이 교차하는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하나의 가림막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공간을 한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막은 건축, 담장에 비해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다. 건축과 담장이 꼭차인 가림막을 형성한다면 수목의 가림막은 적절히 성근 느낌의 가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여 공간을 한정하면 둘러쌓인 상황에서도 부분적으로 반대쪽을 투시할 수 있다. 원림의 한 공간이 면적이 지나치게 커서 건축과 산만으로는 그 주위를 안정된 느낌이 나게 둘러싸기 어려운 경우 수목을 이용해서 보충해 주기도 한다.

IV. 일본

1. 쇼인즈쿠리(書院造) 정원,다이고지(醍醐寺) 산보인(三寶院) 정원

慶長 13년 10월 11일 조에 「泉水、東岸椿共、梢枝ヲミテコミニツクリ畢、大木松見越テ見事也、自愛々々」라는 기사가 있다. 코미니쓰쿠리(コミニツクリ)는 아마도 나무의 둥근 전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못의 동안에는 동백나무를 둥글게 전지하고 그 배후에 큰 소나무를 배치하여 매우 훌륭한 경관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지 작업은 다른 곳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 니시혼간지(西本願寺) 다이쇼인(大書院) 정원

「호계의 뜰」에 있어서 정원의 구성 및 식재를 논의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 『都林泉名勝圖會』이다. 원래 이것은 정원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니나, 이 지도의 성립시기인 寛政 11년(1799) 경의 식재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귀중하며, 현재 대면소가 세워지는 寛永 연간으로부터 이 그림이 그려지는 寛政 연간 사이에는 커다란 개조 공사가 없었다고 추정된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식재의 변화는 있었겠으나, 그 배치 자체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으며, 따라서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식재의 배치와 구성은 확인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정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식재에 관해서 검토해보겠다. 여기에는 거목이 심어져 있었다. 나무는 먼저 소나무가 눈에 띈다. 소나무는 가장 깊은 곳에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수종에 대해서는 잘 구별되지는 않지만, 상록수와 낙엽수가 섞여 있고, 침엽수와 활엽수도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적송과 참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寛政 연간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주는 식재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식재의 배치(配植)에 관해서 보면, 정원의 안쪽 즉 동쪽으로 갈수록 키가 큰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이 정원의 동쪽 끝은 흙으로 만든 둑이 있어, 이곳을 향해 지반이 조금씩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지는 지반에 식재를 하게 되어, 계곡과 같

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들 고목군(高木群) 앞에는 단정하게 전지한 나무군락을 배치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식재의 밀도이다. 연못의 건너편 북쪽에서 동쪽, 그리고 남쪽에 걸쳐 넓은 범위로 전지한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이들의 높이를 고려해 볼 때, 키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나무를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지 나무군은 지금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나무군락을 통해 원산(遠山)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枯瀧石組는 폭포를 모방하여 큰 바위를 세우고, 계류는 옥석으로 표현했다. 이 폭포 석조에는 구부러진 소나무가 심어져 계류를 향해 나뭇가지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流枝 수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왼쪽에 있는 석교 북쪽에도 식재되어 있다. 대면소의 상좌(上座)로부터 이 소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통해 폭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폭포는 한층 깊은 정취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키 큰 나무를 식재하고 좌우에 펼쳐지는 전지 나무군락을 통해 원산의 경치를 더하여, 전체적으로 유현한 계곡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정원의 구성에는 계류 상류와 하류, 뜰의 상부와 하부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뜰의 상부는 험준한 산악과 폭포를 표현하는 석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는 수면을 표현한 흰 모래와 낮은 둔덕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부와 하부의 차이는 구성뿐만 아니라 식재에 있어서도 구별된다. 식재에 특히 주목되는 것이 소철나무이다. 상부 폭포를 이루는 석조 옆에는 크고 굵은 소철이 심어져 있어 힘찬 주경을 연출한다. 하부에 심어진 소철은 크고 작은 것을 섞어 배치하여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이때 상부에 있는 소철나무는 하부의 그것 보다 높은 지반에 심어져 있어 이러한 대비를 더욱 유효하게 한다. 상부에 심은 소철나무는 눈에 띄는 것만을 골라 심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하부의 소철은 앞이나 줄기가 가지런하여 가까운 곳에서의 감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섬의 식재에 관해서 살펴보자. 화면 거의 중앙에 그려진 龜島에는 조금 큰 전지 나무군락이 심어져 있다. 주위의 호안에도 작은 나무를 심고 다듬어 놓았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나무군락의 높이가 억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원 하부에 있는 鶴島를 보면, 龜島와 동일하게 전지한 낮은 나무군락을 심어 호안의 석조를 견고히 하고 있으며, 섬 중앙에는 가지가 아름답고 잎이 작은 거목을 한그루 심어 놓았다. 이 거목 주변에는 작은 키의 나무를 세 그루 심었다. 가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며 작은 잎을 가진 것만을 골라 심은 듯하다.

鶴島 앞에는 또 하나의 섬이 만들어져 있다. 이 섬 역시 龜島와 같이 중앙에 낮은 키의 나무를 전지하여 심어 놓았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섬의 식재에 있어서 상부의 龜島는 낮은 전지가 중심을 이루며 소나무 등을 이용한 것에 비해, 하부의 鶴島는 중앙에 심은 키 큰 나무를 비롯하여 한 그루 한 그루 감상을 위하여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원이나 식재에서 보이는 상부

하부의 구성은 서원 실내에 있어서 상좌(上座)와 하좌(下座)라고 하는 공간 구성에 대응하여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지(露地)

무로마치 시대 문화인들 사이에서는 草庵이 유행하고 있었다. 와비차(侘び茶)의 시조로서 여겨지는 珠光의 양자 宗珠가 교토의 下京에서 운영하던 數寄屋(다실)은 키 큰 소나무와 삼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붉게 물든 담쟁이덩굴이 이른바 「山居의 体」(深山풍경)를 자아내어, 「市中の 隠」이라고 평판이 높았다. 이러한 경관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마치 깊은 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소박한 정경이 당시 새롭게 대동하던 와비차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차를 즐겨하는 애호가에 따라 찻잔(茶碗)이나 다구(茶具)의 취향이 달라지듯이, 로지의 조형에도 일종의 취향이 있다. 그것은 차를 즐겨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미감에 좌우된다. 한 예로서 여기서는 식재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토해 보겠다. 전술한 武野 紹鷗의 사첩반(四疊半) 다실에서 「面坪의 内」에는 一木一草도 심지 않았으며, 이는 차에 집중하기 위하여 주의를 분산시키는 식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았다. 일정 기간 센리큐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烏鼠集』에는 다실의 「次の 間」이나 화장실이 있는 근처에는 공간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목을 조금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로지에 식재를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센리큐가 로지에 식재를 하게 되는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天正 15년(1587) 川崎 梅千代에게 보는 편지에서 초목에 물을 주는 방식, 징검돌의 배치, 다실 실내 구성 등과 함께 「木の植えよう(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하는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그의 다실에 있어서도 식재는 불가결한 요소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물을 로지에 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細川三齋御傳授書』나 『茶譜』 등에 따르면, 소나무 오동나무 산수유를 좋아했지만 낙엽이 지는 나무는 꺼려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로지는 다실을 향하는 구도적 통로였기에,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경관은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유가 식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客の目うつらぬがよし(손님의 눈을 끌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비해 그의 제자 古田織部는 히데요시로부터 무가(武家) 스타일의 차와 그 의례를 창안하도록 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客をもてなす道理を本意とする茶(손님을 잘 대접하는 의미로서의 차)」이며, 이러한 생각은 로지에 있어서도 「景」의 요소를 더욱 중시하는 자세로서 반영되었다. 織部に 관한 자료(傳書)에 따르면, 그가 로지에 심을 만한 수목으로서 17종 이상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종려나무나 소철나무, 전나무 등은 일반적으로는 로지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흥미롭다.

3. 회유식(廻遊式) 정원 특징

명승을 정원에 옮겨놓는 것은 헤이안 시대에 발달한 것이었으나, 龍田山の 단풍나무, 宮城野의 싸리나무, 三保의 소나무 등 장소와 식물이 연결되어 성립된 명소에 근거하여 특정 식물을 정원에 심고 그 식물에 의해 연상되는 정취를 즐기는 수법은 특히 에도시대에 발달하게 된다.

-
- 주 1. 노수신(盧守愼) : 중종 10년(1515)~선조 23년(1590).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저서로는 『소제집』 13권 8책이 있다.
 - 주 2. 이(移) : 삼(杉)나무의 잘못된 표기이다.
 - 주 3. 권벽(權擘) : 중종 15년(1520)~선조 26년(159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대수(大手), 호는 습재(習齋). 저서로는 『습재집』 8권이 있다.
 - 주 4. 김귀영(金貴榮) : 중종 15년(1520)~선조 26년(159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현경(顯卿), 호는 동원(東園).
 - 주 5. 심수경(沈守慶) : 중종 11년(1516)~선조 32년(159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희안(希顔), 호는 청천당(聽天堂). 저서로는 『청천당시집』·『청천당유한록(聽天堂遺閑錄)』이 있다.